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 7월 29일 5, 6번 잠언 다시 한 번 읽어 주며 연결하기.

1.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못 한다. 억지로 하면 꿀 같은 사랑이 되지 못하고, 마치 설탕을 타서 먹는 물 같은 사랑밖에 안 된다.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라고 내가 말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영원히 잘된다는 말을 매일 해야 실천하려느냐.
너희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라고 말했기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꿀과 설탕물 같은 차이가 있는 사랑이다. 누가 꿀을 먹지, 설탕물을 먹겠느냐. 너희가 기도하고 감동받고 깨달아 감동으로 나를 사랑해 보아라.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 사랑이 영원히 가게 된다.
2. 나 예수를 앞에 두고 두 마음을 품고 나를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도 사랑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했다가, 어느 때는 나도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다. 신의 자존심을 알고 그리 하는 것이냐. 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어찌 되는지 너희는 알아라. 내가 돌아서면 그때는 1000배 힘들다.
3. 자기가 좋아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위대한 사랑을 가진 자로서 내가 너무 아끼는 신부다.
4. 사랑이 끊어지면 모든 것도 끊어지게 된다. 사명도, 구원도, 천국도, 영원함도 모두 다 끊어진다. 늘 내 말을 외우고 새기고 살아라.
5. 사랑은 작동할 때는 불같고, 식으면 얼음 같다.

6. 남녀 사이도 처음에 사랑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평생 가듯이,
내 아버지와의 사랑과 나와 사랑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영원히 가게 된다. 나를 중매하여라. 나를 멋있게 증
거해 보아라. 네가 배우고 겪은 것을 확실히 증거해 보아라.